

“환경 열악한 직업계고 교육 장비·강사 비용 지원 절실”



기능영재들의 땀방울
결실 맺으려면

〈상〉 직업계고에 필요한 것들

여수공고 기능영재반 김의현(18·산업설비과 2년)군은 매일 오후 5시까지 수업이 끝나면 어김없이 실습장으로 발길을 돌린다. 실습장 사방엔 불꽃(아크)이 튀고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지만 용접봉을 잡은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실습장의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서야 그의 긴 하루가 마무리 됐다.

직업계고 기능영재반(전공심화동아리) 학생들은 인문계 또래와는 다른 일상을 보낸다. 전국대회 30일 전부터는 주말까지 반납하고 훈련에 매달린다. 방학에도 학교에서 하루종일 기술을 연마한다.

김군은 “최소 5~10시간을 훈련하다보니 체력적으로 힘든 건 당연하고 결과물이 안 나오면 정신적으로도 힘들다”고 했다. 김군과 함께 출전하는 박정현(17·산업설비과 2년)군은 “용접이라는 종목 특성상 쇠물을 몇 시간씩 집중해서 쳐다보아야 하기에 눈도 아프고 날씨가 더워서 힘들다”고 말했다.

전기제어 종목에 출전하는 박용준(18·송의과학기술과 전기과 2년)군은 “훈련이 너무 힘들다. 친구들과 놀고 싶다”며 웃어보였다.

이들이 성인도 버거워할 훈련을 견디는 이유는 광주에서 20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60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다. 지역 대표로 출전하는 학생들은 광주·전남 지역의 실업계고·기

20~26일 광주 전국기능경기대회
광주 105명·전남 100명 학생 출전
강사 섭외 못해 선배 노하우에 의존
기능올림픽 태극마크 위해 최선

능영재반’ 학생들이다.

매년 초가을에 열리는 전국대회는 50여개의 직종에서 기술인들이 각축하는 대회로 기능인의 등용문으로도 불린다. 광주에서는 37개 직종에 105명, 전남에서는 100명의 학생선수가 출전한다.

전국대회는 기능영재반 학생들에게 대회 이상의미를 지닌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은 상급과 함께 2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면제되고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다.

직종별 1·2위 성적을 거둔 선수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영광이 주어진다.

18일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직업계고는 마이스터고 2곳, 특성화고 11개 등이 있으며, 전체 13개 학교에 2300여명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전남에는 마이스터고 4곳, 특성화고는 39개에 달한다.

이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전국 기능대회 등을 통해 꿈을 펼쳐치기 위해 땀을 흘리지만 교육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직업인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같은 처지다.

제조·기계 기반 종목에 출전하는 광주·전남 학생과 지도교사는 “공구는 결국 쓰면 쓸수록 닳는 소모



모바일로봇믹스 종목에 출전하는 여수공고 3학년 김유찬 군이 로봇을 정비하고 있다.

품이다 보니 연습을 할 때마다 소모품 값이 지속적으로 나간다”면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는 소모품 비용을 충당하기 힘들고 매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지만 그래도 부족해 연습에 차질이 생길 때 가 많다”고 토로했다.

첨단 분야인 로봇과 드론 관련 직종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을 내세우지만 교육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학생들은 “로봇이나 드론 가격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나가다 보니 훈련 장비를 충분히 갖추기가 쉽지 않다”며 “부족한 장비 탓에 학생들은 틈날 때마다 장비를 번갈아 사용한다”고 말했다.

‘모바일로봇믹스’ 종목에 출전하는 김유찬(19·여수공고 3년)군은 “로봇이나 로봇 프레임은 조립할 때 사용되는 부품은 대부분 해외제품이다. 이런 특



전기제어 종목에 출전하는 송의과학기술과 2학년 박용준 군이 훈련에 임하고 있다.

성상 부품 값이 무척 비싸다”며 “소모품을 충당하기 힘들기에 훈련에 차질이 생길 때가 많다”고 전했다. 심지어 학교에서 심화과정을 소화할 수 없어 외부 교육기관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메카트로닉스’ 종목에 출전하는 김무영(19·광주전자공고 3년)은 “심화 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선 외부강사를 섭외해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선생님을 학교에 모시는 예산이 충분치 않아 선배들의 노하우에만 의존해야 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광주전자공고 김갑천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열심히 안한다면 장비나 공구가 남아돌겠지만 열심히 하기에 항상 부족하다. 제자들에게 지원을 넉넉하게 해주고 싶는데 마음처럼 안 될 때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하성민 인터넷기자 hasungmin14@naver.com

박삼구 前 금호회장 횡령·배임 무죄…호남 대표 기업 자존심 지켰다

공정거래법 위반만 인정…징역 2년6개월 집유 4년 선고
금호그룹 관계자 “과거 오명 털어내고 재도약 발판 될 것”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법정 다툼의 종대한 국면을 넘겼다.

호남 대표 기업으로서 지역민의 자부심을 상징해 온 금호그룹은 이번 판결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냈다’는 평가 속에 재도약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중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계열사 간 부당거래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진도 집행유예에 또는 무죄 판

결을 받았다. 사실상 ‘횡령·배임 무죄’라는 판결은 박 전 회장에게 씌워졌던 중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벗겨졌음을 의미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특히 지역 사회에선 이번 판결을 놓고 단순히 한 기업인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넘어 ‘호남 대표 그룹의 자존심’을 지켜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46년 광주에서 출발한 금호그룹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적 ‘지역 기업’이기 때문이다. 금호그룹은 고속버스와 타이어, 아시아나항공까지 확장하며 2000년대 전성기를 이루며 호남인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재계 7대 그룹까지 올라섰던 금호그룹은 지방인재들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당시 호남 인재를 대거 채용하며 지역 청년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했고, 사회공헌과 기부, 문화예술 지원

등에도 앞장섰다.

금호그룹은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개념이 ‘기업의 기본’으로 자리 잡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으며, 이 같은 금호그룹의 정신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한 금호문화재단은 전국적인 음악 영재 발굴과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광주 유스퀘어터미널 내 복합문화시설인 유스퀘어문화관과 금호아트홀, 동산아트홀, 금호갤러리 등은 지역민들에게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각인돼 있을 정도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금호 임직원 모두 박 전 회장과 임원이 횡령·배임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당연한 판결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판결은 금호그룹이 과거의 오명을 털어내고 재도약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 ‘드림챌린지’ 행사…청년들과 소통

광주시가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현장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18기를 대상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드림챌린지’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자기주도형(주 25시간·5개월) 참여자 300여 명과 집중참여형(주 40시간·3개월) 참여자 80여 명이 함께했다. 프로그램은 면접 특강, 강기정 시장과의 소통 강연, 드림청년 네트워크 활동

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취업 준비와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정고은 교육컨설팅 전문가의 특강이 진행됐다. ‘합격을 말하는 면접 스킬’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는 면접 준비 전략과 답변 기술을 다루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네트워크 활동 시간에는 독립영화 ‘신기록’을 함께 관람한 뒤 허지은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관람객 10만 명 돌파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개막 20일 만에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18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막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이날까지 누적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전시장이 마련된 목포와 해남, 진도 곳곳에 주말마다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어, 목표 관람객 40만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321년 만에 일반

에 공개된 공재 윤두서의 ‘세마도’와 전통과 현대 미술이 결합된 수목 작품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신선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관람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목 비지코밍 아트’와 해남 땅끝순례문학관의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등 청소년과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관람객 증가에 한 몫했다는 평가다. /김민석 기자 mskim@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한태선(510411-1XXXXXX)
- 최후주소: 광주 광산구 광산로56번길 47-9

피상속인 망 한태선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제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 단 4342호로 신청하여 2025년 9월 1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9월 19일

- 상속인: 1.이정순(530611-2XXXXXX)
광주 광산구 광산로56번길 47-9(송정동)
2.한은숙(760810-2XXXXXX)
전주시 소호로19번길 11, 114동 1102호
(중무공동, 전주혁신도시중흥에스클래스리프라임)
3.한영훈(780119-1XXXXXX)
광주 광산구 광산로56번길 47-9(송정동)
- 신고기간: 2025. 9. 19. ~ 2025. 11. 29.
- 채권선고장소: 상속인 2. 한은숙의 주소

의료빌딩 급매 (7층)

병·의원 개원 최고, 현재 수익률 6%
소아청소년과, 통증과, 약국(영도가농)
2층 내과 실면적 170평 준비 중
월 3천 1백, 주차 23대, 빌딩 앞 흰색선,
공용주차장 50대, 군산중심, 롯데마트 앞.

매 72억, 인수가 20억

010-3646-870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	-------------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1985-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